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rs and Peer Relationships on Early Adolescents' Self-Concept

Kim, Soyoun¹⁾ (KNSU)

<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s between early adolescents' self-concept, parenting behaviors, and peer relationships using ACLM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For this analysis, metric invariance, configural invariance, and error covariance invariance assumptions were met. The data was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KELS) collected by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for three years (1st year, 2013, elementary 5th), (2nd year, 2014, elementary 6th) (3rd year, 2015, middle 1s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elf-concept, parenting behaviors, and the peer relationships had a significant autoregressive effect ($p < .01$) across three years in the group. But, the autoregressive effects for the self-concept and parenting behavior were larger than the peer relationships' autoregressive effect. That is, the peer relationship is less stable than self - concept or parenting behavior, and therefore it is more likely to change over time.

The cross-lagged regressive effects showed that the self-concept is more influenced by the parenting behaviors than peer relationships. The parenting behaviors were also influenced by the self-concept, and these two variables were complementary causality that acted as cause and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 - concept and the peer relationships, the self - concept only acted as a cause of the peer relationship.

Key words: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KELS), self-concept, parenting behaviors, peer relationships

1) Corresponding Author: KIM Soyoun,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1239 Yangjae-Daero, Songpa-Gu, Seoul, Korea, 05541 / E-mail: ksoyoun@knsu.ac.kr

초기 청소년의 부모관계와 또래관계가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김소영¹⁾ (한국체육대학교)

< 요약 >

본 연구는 한국교육중단연구2013 1차(2013년도, 초5), 2차(2014년도, 초6), 3차(2015년도, 중1)를 활용하여 초기 청소년의 자아개념, 부모관계, 또래관계 간 종단적 관계를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을 사용하여 탐색하였다. 총 7,234명 학생이 2013, 2014, 2015년 연구에 참여했으나, 이 학생 중 3년 동안의 모든 응답이 있는 학생, 최종 5,951명만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분석을 위한 시간에 따른 측정 동일성, 경로 동일성, 오차 공분산 동일성은 모두 충족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회귀계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전년도 자아개념, 부모관계, 또래관계가 다음연도 자아개념, 부모관계, 또래관계에 각각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둘째, 자아개념은 이전연도 부모관계에 의해 향상되었으나 또래관계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2차연도인 초6 부모관계는 또한 초5 자아개념에 의해 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아개념과 부모관계는 서로 원인과 결과로 작용하는 상보적 인과관계임을 보여주나, 자아개념과 또래관계 간 관계는 자아개념이 또래관계의 원인으로만 작용함을 시사한다. 3) 자아개념과 부모관계 중 다음연도 또래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개념이었다. 4) 부모관계와 또래관계 간 인과관계는 부정적 인과관계로 나타났다. 이전 시점의 부모관계는 이후 시점 또래관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이전 시점의 또래관계는 이후 시점의 부모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주요어: 한국교육중단연구, 청소년 자아개념, 부모자녀 관계, 또래관계

1) 교신저자: 김소영, (05541)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 E-mail: ksoyoung@knsu.ac.kr
논문투고: 2019. 5. 18 / 심사일자: 2019. 5. 25 / 게재확정일자: 2019. 6. 1

I. 서론

자아개념은 자아에 대한 일반적인 지각으로 주어진 사회환경 속에서 자신의 신체, 행동, 능력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객관적으로 알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개인적인 성취, 인성계발 및 자아실현, 생활에 대한 만족도, 학업 성취, 학교생활 적응, 행동, 동기, 감정 등 인간 행동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사라와 오윤진(2008)은 자아개념은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특성이기보다는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고 했다.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한 타인(significant others)은 주요한 환경적 요인이다. 이들과의 상호작용이나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자아개념은 형성되며 일생을 통해 성숙과 학습의 결과에 따라 수정 변화된다(조윤하, 1998).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중요한 타인은 부모와 또래로서 이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부모나 또래가 개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평가하게 된다. 특히, 아동기의 경우 가장 중요한 타인은 부모이며(송인섭, 1998), 대부분의 연구자도 부모의 역할이 아동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원천이 된다는 데 동의한다(Anderson, 1952; 이사라 외, 2008 재인용). 일반적으로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의 영향력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또래관계가 아동기에 비해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희영, 양미경, 곽수란, 2015; McGuire, 1983).

부모의 수용적, 온정적, 자율적, 애정적 태도는 아동의 자아개념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나, 통제적, 거부적, 권위적 태도는 아동의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희경, 1990; 도현심, 최미경, 1998). “부모가 아동을 애정적으로 대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도록 격려하는 양육행동을 보일 때, 자녀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반면에 부모가 통제와 거부, 제재를 많이 하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박응임, 김현숙, 2000, p.85). 부모의 영향력은 청소년기 자아개념 형성에도 여전히 중요한데, 부모의 관심과 지지, 지속적인 대화 및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자녀가 올바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태도이다(권해진, 김경희, 염순교, 조주연, 함미영, 2005; 이사라, 박혜원, 2005). 아동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에도 부모의 통제적인 태도, 처벌, 강제, 제한 등의 태도는 자아개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무관심, 권위적 태도, 부부갈등이나 부부 폭력 등도 청소년기 자아개념 형성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래관계는 아동기보다는 또래집단에 상대적으로 강한 애착을 보이는 청소년기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또래집단에서 인기가 많을수록, 또래의 수용성이 높을수록, 또래관계

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높게 나타난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자아개념 형성에 부모 자녀 관계(또는 부모 양육태도, 이하 부모관계)나 또래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앞선 연구들은 여러 제한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첫째로, 대부분의 연구가 횡단적 연구 방법으로 일회성 자료를 수집하여 평균비교, 분산분석,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모형, 중다회귀분석 방법 등을 활용하여 변인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박응임, 2000; 이운주, 현정화, 2003; 윤경희, 김경희, 2005; 김희영 외, 2015). 이는 자아개념 형성에 관련해 종단적 변화를 탐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홍세희, 박언하, 홍혜영(2006)은 한국 청소년 중2패널 1, 2, 3차 자료로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를 살펴보았으나, 이렇게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자아개념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 연구도 제한적이다. 셋째, 자아개념 형성에 부모 자녀 관계, 또래관계 중 어떠한 변인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도 종단적 양상을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다. 부모관계, 또래관계의 자아개념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김희영 외(2015), 이사라 외(2008), 홍세희 외(2006) 연구가 수행되기는 했지만 홍세희 외(2006)를 제외하곤 횡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이 변인 간의 영향력 변화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다. 넷째, 부모관계와 또래관계 간 영향력을 탐색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교육중단연구2013 1차(초 5), 2차(초 6), 3(중 1)차 자료를 활용하여 초기 청소년의 자아개념, 부모관계, 또래관계 간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하여 초기 청소년의 자아개념, 부모관계, 또래관계의 안정성뿐 아니라 자아개념 형성에 부모 자녀 관계(또는 부모 양육태도, 이하 부모관계)나 또래관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자세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 첫째, 초기 청소년의 자아개념, 부모관계, 또래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인가?
- 둘째, 초기 청소년의 자아개념, 부모관계, 또래관계 간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 영향력은 회기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 셋째, 초기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부모관계, 또래관계 중 어떤 변인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이는 회기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자아개념, 부모 관계, 또래관계 간 종단적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한국교육중단

연구2013 1차(2013년도, 초5), 2차(2014년도, 초6), 3차(2015년도, 중1)를 활용하였다.

총 7,234명 학생이 2013, 2014, 2015년 연구에 참여했으나, 이 학생 중 3년 동안의 모든 응답이 없는 학생을 제외하고 최종 5,951명만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학생은 2,878명, 전체 학생의 48.4%, 여학생은 3,073명, 전체 학생의 51.6%를 차지하였다. 국공립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5,669명, 95.3%였고,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282명, 4.7%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변인	특성	빈도(%)
성별	남	2,878(48.4)
	여	3,073(51.6)
학교 설립유형	국공립	5,669(95.3)
	사립	282(4.7)
학교 도시규모	특별시	1,086(18.2)
	대도시	1,425(23.9)
	중소도시	2,250(37.8)
	읍면지역	1,190(20.0)
계		5,951(100)

2. 연구변인 및 측정내용

본 연구는 한국교육중단연구2013 1차, 2차, 3차 설문 중에서 학생이 응답한 자아개념, 부모관계²⁾, 또래관계 관련 문항을 활용하여 이들 변인 간의 종단적 관계를 탐색하였다. 문항은 3년에 걸쳐 동일하게 사용된 것만을 활용하였다. <표 2>에 변인별 문항이 나타나 있다.

<표 2> 자아개념, 부모와의 관계, 또래관계 측정 문항

변인	문항
자아개념	1)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2) 친구들은 나와 함께 놀기를 좋아한다 3) 나는 단체 생활을 잘 한다 4)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2) 모든 문항은 한국교육중단연구2013 차, 2차, 3차 설문내용임. 학생이 응답한 부모와의 관계를 묻는 변인은 1차, 2차, 3차 연구 기간 동안 일치하는 문항만을 분석에 포함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내 친구들은 나를 믿는다 6) 나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7) 나는 행복한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8)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9) 가족들은 나의 고민을 잘 도와준다 10) 우리 부모님을 나를 이해하신다 11) 나는 나의 얼굴 생김새에 만족한다 12) 나는 나의 몸매에 만족한다 13) 나는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14) 나는 호감을 주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 15) 나의 용모는 매력적인 편이다 16)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공부를 한다 17) 나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다 18) 나는 수업시간에 발표하거나 호명되는 것을 좋아한다 19) 나는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한다 20)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에 임한다
부모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가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있게 물어보신다 2) 사소한 것도 여쭙어보면 잘 듣고 대답해 주신다 3) 나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해주신다 4) 집안의 공부 분위기를 조성하신다 5) 학교 공부와 숙제를 확인하신다 6) 공부 방법에 대해 조언하신다 7) 성적 관리에 신경 쓰신다 8) 평소 생활을 확인하고 일정을 관리하신다
또래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2)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3)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4)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5)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6)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개념, 부모관계, 또래관계 간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을 사용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변수 간의 쌍방향적 관계(nonrecursive)를 종단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다(임진섭, 2010). 기존의 연구는 부모관계, 또래관계의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기반한 이론이나 논리를 통해 변인 간의 방향성을 정한 후 이에 대한 일면적 분석을 주로 시도하였다. 예를 들면, 부모관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 1회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참여자의 응답으로 부모관계를 독립변인,

청소년의 자아개념 정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이나 변량분석을 실시하는 경우가 일면적 분석에 해당된다. 또는, 또래관계의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또래관계가 독립변인, 청소년 자아개념이 종속변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1회의 설문조사나 기존의 분석방법으로는 두 변인 간 인과관계를 정확히 검증하기는 어렵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면 변인 간의 관계를 종단적·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고 명확한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홍세희, 김원정, 박민선, 2007, 임진섭, 2010, p. 168 재인용). 또한, 이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개념, 부모관계, 또래관계 간의 인과적 관계를 한 모형에서 탐색하는 연구로 부모관계와 또래관계 간 인과관계도 살펴볼 수 있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분석을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측정 동일성, 경로 동일성, 오차 공분산 동일성이 성립해야 한다. 이 세 가지 동일성은 순차적(측정-경로-오차 공분산)으로 검증하고, 앞선 가정이 충족되어야만 다음 가정을 검증할 수 있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설정하였다.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 공분산 동일성은 16개의 경쟁모형을 통해 검증되었고, 16개의 모형은 아래와 같다. 각 잠재변수에 해당되는 측정 변수는 <표 1>에 나타난 문항을 탐색적 요인분석(Explanatory Factor Analysis)으로 분석하여 구성하였다. 통계 프로그램 SPSS 18.0과 AMOS 7.0을 활용하여 연구문제에 제시된 다양한 주제를 탐색하였다.

모형1: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은 기본 모형

모형2: 잠재변수 자아개념에 대한 요인적재치(a_1, a_2, a_3)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3: 모형 2에 추가하여 잠재변수 부모관계의 측정변수에 요인적재치(b_1, b_2)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4: 모형 3에 추가하여 잠재변수 또래관계의 측정변수에 요인적재치(c_1)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5: 모형 4에 추가하여 잠재변수 자아개념의 자기회귀계수(A)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6: 모형 5에 추가하여 부모관계의 자기회귀계수(B)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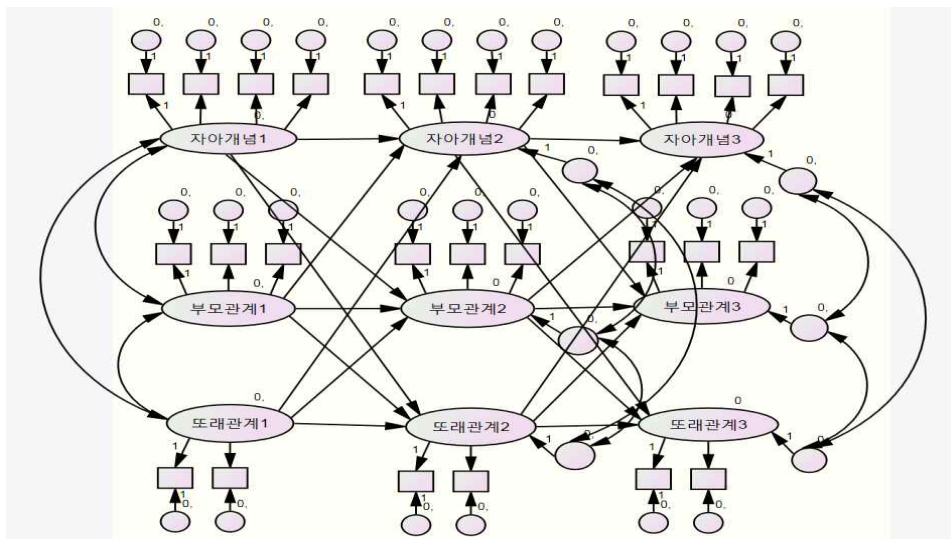
모형7: 모형 6에 추가하여 또래관계의 자기회귀계수(C)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8: 모형 7에 추가하여 잠재변수 부모관계에 대한 잠재변수 자아개념의 교차회귀계수(D)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9: 모형 8에 추가하여 잠재변수 또래관계에 대한 잠재변수 자아개념의 교차회귀계수(E)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10: 모형 9에 추가하여 잠재변수 또래관계에 대한 잠재변수 부모관계의 교차회귀계수(F)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11: 모형 10에 추가하여 잠재변수 자아개념에 대한 잠재변수 부모관계의 교차회귀계수(G)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12: 모형 11에 추가하여 잠재변수 자아개념에 대한 잠재변수 또래관계의 교차회귀계수(H)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13: 모형 12에 추가하여 잠재변수 부모관계에 대한 잠재변수 또래관계의 교차회귀계수(I)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14: 모형 13에 추가하여 자아개념과 부모관계의 오차 공분산 사이(J)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15: 모형 14에 추가하여 부모관계와 또래관계의 오차 공분산 사이(K)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16: 모형 15에 추가하여 자아개념과 또래관계의 오차 공분산 사이(L)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2, 3, 4는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한 모형이고, 모형 5에서 7까지는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검증을 위한 모형이다. 모형 8에서 13까지 모형은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검증을 위한 모형이다. 모형 13에서 16까지는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을 위한 모형이다. 이 모형들은 AMOS 18.0으로 순차적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 연구모형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이용하여 계수를 추정하였고, 각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χ^2 검증을 고려하였다. χ^2 검증은 자료의 공분산구조(covariance matrix)와 모형의 공분산 구조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나, 이는 표집 크기에 쉽게 영향을 받으므로 여러 적합지수를, GFI(Goodness of fit Index), NFI(norm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추가로 이용하였다. NFI, CFI는 .90 이상일 때, RMSEA는 0.6~0.8이하일 때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해석한다(홍세희, 2000; Hu & Bentler, 1999; Schmaker & Lomax, 1996). 모형 비교를 위해서는 두 모형의 자유도 차이를 이용한 χ^2 값 차이($\Delta \chi^2$)를 통해 비교하였고, χ^2 검증이 표집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Cheung과 Rensvold(2002)이 제시한 CFI값 차이(ΔCFI)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모형을 비교하였다. ΔCFI 값이 .01을 초과하여 떨어지지 않을 경우 동일성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백승희, 전현정, 정혜원, 2014).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자아개념의 측정변인인 사회자아개념, 가족자아개념, 신체자아개념, 학업자아개념, 부모관계의 측정변인이 학업지원, 상호작용, 일정관리, 또래관계의 측정변인인 교우관계, 또래애착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4>에 나타나 있다. 사회자아개념과 가족자아개념이 신체, 학업 자아개념 보다 3년 동안 꾸준히 높았으며, 각 자아개념 간 연도별 차이는 미비하였다. 부모관계 측정변인도 3년 동안 증감의 정도가 작았고, 세 측정변인 중 상호작용 변인의 정도가 학업지원, 일정관리에 비해 높았다. 또래관계 변인의 측정변인인 이해존중, 상호신뢰 변인도 3년 동안 변화가 거의 없었다.

<표 4>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잠재변인	측정변인	1차(2013)			2차(2014)		3차(2015)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아개념	사회자아개념	5,951	4.18	.65	4.21	.63	4.19	.64
	가족자아개념	5,951	4.40	.69	4.38	.70	4.33	.72
	신체자아개념	5,951	3.54	.81	3.48	.81	3.52	.80

	학업자아개념	5,951	3.85	.79	3.83	.79	3.73	.79
	학업지원	5,951	3.30	.87	3.38	.94	3.22	.90
부모관계	상호작용	5,951	3.94	.90	3.98	.77	3.99	.87
	일정관리	5,951	3.54	.90	3.94	.86	3.38	.94
	이해존중	5,951	3.82	.85	3.73	.89	4.00	.72
또래관계	상호신뢰	5,951	3.75	.92	3.97	.96	3.93	.85

<표 5>에 나타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사회적자아개념, 가-가족자아개념, 신-신체자아개념, 학-학업자아개념, 원-학업지원, 상-상호작용, 일-일정관리, 이-이해존중, 호-상호신뢰). 사회적자아개념은 대체적으로 교우관계의 이해존중, 상호신뢰 측정변인과 상관관계가 다른 변인 간 관계보다 높았다. 가족자아개념은 부모관계 중 상호작용과 상관관계가 다른 변인 간 관계보다 높았다. 신체자아개념과 학업자아개념은 부모관계 보다 또래관계와 상관관계가 더 높았다.

<표 5>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2013									2014									2015										
	자아개념			부모관계			또래관계			자아개념			부모관계			또래관계			자아개념			부모관계			또래관계				
	사1	가1	신1	학1	원1	상1	일1	이1	호1	사2	가2	신2	학2	원2	상2	일2	이2	호2	사3	가3	신3	학3	원3	상3	일3	이3	호3		
사1																													
가1	.46																												
신1	.52	.44																											
학1	.58	.48	.50																										
원1	.31	.42	.32	.40																									
상1	.35	.51	.31	.40	.56																								
일1	.24	.22	.20	.28	.55	.34																							
이1	.63	.39	.43	.52	.34	.37	.24																						
호1	.58	.32	.37	.44	.29	.32	.20	.79																					
사2	.57	.34	.38	.41	.27	.30	.21	.44	.41																				
가2	.30	.55	.30	.33	.33	.38	.19	.27	.21	.47																			
신2	.34	.28	.57	.31	.25	.22	.16	.29	.25	.51	.42																		
학2	.39	.35	.35	.55	.33	.31	.22	.35	.30	.57	.50	.51																	
원2	.23	.29	.23	.30	.51	.34	.33	.22	.18	.28	.39	.28	.38																
상2	.24	.35	.21	.29	.38	.44	.23	.22	.18	.32	.49	.26	.39	.49															
일2	.19	.17	.15	.23	.35	.22	.47	.18	.15	.23	.20	.18	.26	.53	.32														
이2	.42	.31	.31	.36	.28	.29	.19	.46	.39	.61	.41	.40	.51	.31	.34	.24													
호2	.41	.26	.27	.31	.23	.25	.16	.40	.43	.58	.34	.35	.43	.27	.29	.21	.77												
사3	.47	.26	.32	.33	.22	.23	.17	.36	.35	.57	.31	.35	.39	.21	.24	.18	.43	.41											
가3	.24	.45	.23	.26	.27	.30	.14	.22	.18	.31	.57	.28	.35	.30	.37	.16	.32	.27	.46										
신3	.30	.26	.48	.27	.21	.18	.13	.24	.21	.35	.29	.58	.34	.22	.20	.13	.29	.25	.51	.42									
학3	.31	.28	.31	.45	.30	.25	.19	.30	.26	.39	.35	.36	.56	.33	.30	.24	.35	.30	.55	.48	.52								
원3	.18	.27	.20	.26	.46	.28	.30	.20	.15	.24	.33	.24	.33	.55	.36	.38	.26	.20	.28	.43	.31	.43							
상3	.23	.35	.20	.26	.34	.38	.19	.23	.19	.28	.44	.24	.33	.39	.47	.22	.29	.24	.34	.62	.32	.41	.57						
일3	.15	.16	.13	.22	.34	.20	.39	.15	.11	.18	.19	.15	.24	.39	.26	.49	.18	.13	.22	.24	.20	.31	.64	.36					
이3	.37	.27	.27	.31	.25	.26	.18	.39	.35	.45	.32	.31	.38	.24	.27	.19	.45	.41	.63	.42	.41	.51	.34	.41	.26				
호3	.35	.22	.22	.25	.19	.20	.15	.34	.37	.42	.25	.25	.31	.19	.20	.15	.38	.44	.59	.36	.36	.43	.27	.34	.21	.77			

2. 자아개념, 부모관계, 또래관계 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결과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 공분산 동일성을 검증하는 16개 모형을 순차적으로 검증한 결과가 <표 6>에 나타나 있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값 차이($\Delta \chi^2$)와 CFI값 차이(ΔCFI)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표 6> 자아개념, 부모관계, 또래관계 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NFI	CFI	RMSEA	$\Delta \chi^2$	Δdf	ΔCFI
모형 1	9097.112**	279	.903	.906	.073			
모형 2	9114.946**	285	.903	.905	.072	17.834**	6	.001
모형 3	9178.046**	289	.902	.905	.072	63.100**	4	0
모형 4	9200.247**	291	.902	.905	.072	22.201**	2	0
모형 5	9201.477**	292	.902	.905	.072	1.231	1	0
모형 6	9210.084**	293	.902	.904	.072	8.606**	1	.001
모형 7	9210.184**	294	.902	.904	.071	.100	1	0
모형 8	9210.6246**	295	.902	.904	.071	.441	1	0
모형 9	9216.686**	296	.902	.904	.071	6.061**	1	0
모형 10	9219.485**	297	.902	.904	.071	2.799	1	0
모형 11	9221.045**	298	.902	.904	.071	1.560	1	0
모형 12	9221.217**	299	.902	.904	.071	.172	1	0
모형 13	9231.116**	300	.901	.904	.071	9.899**	1	0
모형 14	9235.248**	301	.901	.904	.071	4.132*	1	0
모형 15	9236.644**	302	.901	.904	.071	1.396	1	0
모형 16	9238.986**	303	.901	.904	.070	2.342	1	0

* $p < .05$, ** $p < .01$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은 기본모형(모형 1)과 측정동일성 가정에 따라 측정변인 요인적 재치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2 간의 χ^2 값 차이($\Delta \chi^2_{(6)}=17.384$, $p < .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CFI값 차이(ΔCFI)가 .1을 초과하지 않았다. 모형 2와 모형 3과의 χ^2 값 차이($\Delta \chi^2_{(4)}=63.100$, $p < .01$), 모형 3과 모형 4와의 χ^2 값 차이($\Delta \chi^2_{(2)}=22.201$, $p < .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CFI값 차이(ΔCFI)는 .1을 초과하지 않았다. χ^2 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으므로, 표본에 덜 민감함 적합도 지수 ΔCFI 값이 .1을 초과하지 않아(백승희 외, 2014), 자아개념, 부모관계, 또래관계 변인은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가정에 따라 자기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5와 측정동일성 모형 4 간의 χ^2 값 차이($\Delta \chi^2_{(1)}=1.231$, $p < .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CFI값 차이(ΔCFI)가 .1을 초과하지 않아 시간에 따른 자아개념 자기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이 성립되었다. 부모관계 자기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6과 모형 5 간의 χ^2 값 차이($\Delta \chi^2_{(1)}=8.606,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CFI값 차이(ΔCFI)는 .1을 초과하지 않았다. 또래관계 자기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7과 측정동일성 모형 6 간의 χ^2 값 차이($\Delta \chi^2_{(1)}=1.231,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CFI값 차이(ΔCFI)가 .1을 초과하지 않아 시간에 따른 또래관계 자기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이 성립되었다. 위 결과로 자기회귀계수 경로동일성 가정은 충족되었다.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가정에 따라 자아개념의 정서문제에 대한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8과 모형 7과의 χ^2 값 차이($\Delta \chi^2_{(1)}=.441,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자아개념의 또래관계에 대한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9와 모형 8과의 χ^2 값 차이($\Delta \chi^2_{(1)}=6.601,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모관계의 또래관계에 대한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10과 모형 9와의 χ^2 값 차이($\Delta \chi^2_{(1)}=2.799, p>.05$), 부모관계의 자아개념에 대한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11과 모형 10과의 χ^2 값 차이($\Delta \chi^2_{(1)}=1.560, p>.05$), 또래관계의 자아개념에 대한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12와 모형 11과의 χ^2 값 차이($\Delta \chi^2_{(1)}=.172,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관계의 또래관계에 대한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13과 모형 12와의 χ^2 값 차이($\Delta \chi^2_{(1)}=9.899,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경로동일성을 검증하는 모형 8에서 모형 13까지 CFI값 차이(ΔCFI)는 .1을 초과하지 않아 교차회귀계수의 동일성 가정도 충족되어, 시간에 따른 경로동일성은 모두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개념과 부모관계 간 오차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14와 모형 13과의 χ^2 값 차이($\Delta \chi^2_{(1)}=4.132,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부모관계와 또래관계 간 오차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15와 모형 14의 χ^2 값 차이($\Delta \chi^2_{(1)}=1.396, p>.05$)와 자아개념과 또래관계 간 오차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15와 모형 16과의 χ^2 값 차이($\Delta \chi^2_{(1)}=2.342,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차 공분산 동일성을 검증하는 모형 14에서 모형 16까지 CFI값 차이(ΔCFI)는 .1을 초과하지 않아 시간에 따른 오차공분산 동일성이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가 설정한 모형의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 동일성이 모두 충족되었고 모형 16이 최종모형이 되었다.

최종모형의 적합도를 측정된 결과 모형 적합지수가 $\chi^2_{(303)}=9238.986(p<.01)$, NFI=.901, CFI=.904, RMSEA=.070으로, χ^2 검증이 유의했으나, 그 외의 모형 적합지수가 충족되므로 본 자료에 적합하였다. 최종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경로도와 표준화 경로계수가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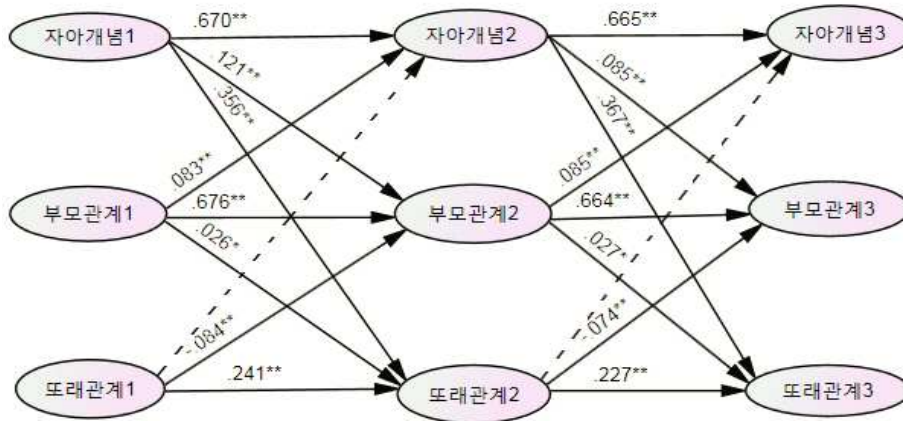
최종모형을 통해 확인한 자기회귀계수인 자아개념 정도가 이후 자아개념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670$, $\beta=.665$, $p<.01$). 이전 시점의 부모관계가 이후 시점의 부모관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676$, $\beta=.664$, $p<.01$), 이전 시점의 또래관계 또한 이후 시점의 또래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41$, $\beta=.227$, $p<.01$). 이러한 결과는 전년도 자아개념, 부모관계, 또래관계가 다음연도 자아개념, 부모관계, 또래관계에 각각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 세 변인은 시간이 경과해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자아개념과 부모관계 동일 변인 간 인과관계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또래관계 자기회귀계수는 자아개념과 부모관계의 계수보다 작았다([그림 2] 표준화 자기회귀계수 참조).

자아개념, 부모관계, 또래관계 사이의 관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교차지연계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이전 시점의 자아개념 정도는 이후 시점의 부모관계($\beta=.121$, $\beta=.085$, $p<.01$), 또래관계($\beta=.356$, $\beta=.367$, $p<.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전년도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다음연도 부모관계와 또래관계는 더 긍정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자아개념은 부모관계와 또래관계를 증진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특히, 이전 시점의 자아개념 영향력은 부모관계($\beta=.121$, $\beta=.085$)에 비해 또래관계($\beta=.356$, $\beta=.367$)에 더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이전 시점의 부모관계가 이후 자아개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전 시점의 부모관계 정도는 이후 시점의 자아개념($\beta=.083$, $\beta=.085$, $p<.01$), 또래관계($\beta=.026$, $\beta=.027$,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전년도에 부모관계 정도가 높을수록 다음연도 자아개념과 또래관계는 더 긍정적이 되며, 부모관계는 자아개념과 또래관계 증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이전 시점의 또래관계가 이후 자아개념과 부모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전 시점의 또래관계는 이후 시점의 자아개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관계는 자아개념 성장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전 시점의 또래관계는 이후 부모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84$, $\beta=-.074$, $p<.01$). 이전 시점의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이후 시점의 부모관계는 나빠졌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이전 시점 자아개념은 이후 부모관계와 또래관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전 시점 부모관계도 이후 자아개념과 또래관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전 시점의 또래관계는 이후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이후 부모관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아개념, 부모관계, 또래관계 간 인과관계를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자아개념과 부모관계는 또래관계를 통제된 상황에서 서로 원인과 결과로 작용하는 인과적 상보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자아개념과 또래관계는 부모관계를 통제된 상황에서 자아개념이 또래관계의 원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관계와 또래관계는 자아개념이 통제된

상황에서 부정적인 인과관계를 보였다.



[그림 2]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경로도와 표준화 경로계수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교육중단연구2013 1차(2013년도, 초5), 2차(2014년도, 초6), 3차(2015년도, 중1) 자아개념, 부모 관계, 또래관계 변인 간의 종단적 관계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탐색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분석을 위한 시간에 따른 측정 동일성, 경로 동일성, 오차 공분산 동일성은 모두 충족되었고, 최종모형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가 아래와 같다.

첫째, 자기회귀계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초기 청소년의 전년도 자아개념, 부모관계, 또래 관계가 다음연도 자아개념, 부모관계, 또래관계에 각각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세 변인은 시간이 경과해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안정성 정도는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자아개념($\beta=.670$, $\beta=.665$)과 부모관계($\beta=.676$, $\beta=.664$) 동일 변인 간 인과관계는 높아 안정성 정도가 높았으나, 또래관계 자기회귀계수($\beta=.241$, $\beta=.227$)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계수가 작아서 안정성은 자아개념과 부모관계 보다 낮았다. 이는 또래관계가 자아개념이나 부모관계에 비해 변화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둘째,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아개념은 이전연도 부모관계에 의해 향상되었으나 또래관계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2차 연도인 초6 부모관계는 또한 초5 자아개념에 의해 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아개념과 부모관계는 서로 원인과 결과로 작

용하는 상보적 인과관계임을 보여주나, 자아개념과 또래관계 간 관계는 자아개념이 또래관계의 원인으로만 작용함을 시사한다. 부모는 여러 형태로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여러 연구에 나타나 있다(김희경, 1990; 도현심 외, 1998; 송인섭, 1998; 박응임 외, 2000; 이사라 외, 2005). 이 결과는 자아개념에 대한 부모 영향력을 탐색한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였던 부모관계의 정적 영향력과 일치한다. 그러나, 또래관계의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와는 상반된다. 이사라 외(2008) 연구는 청소년(만 16세) 자아개념은 부모의 양육행동 보다는 또래관계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된다고 보고하였고, 김희영(2015) 결과도 중1의 경우 자아개념은 부모관계 보다는 교우관계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에 대해 추후 다양한 연구대상 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방법(예, 질적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연구가 추가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아개념과 부모관계 중 다음연도 또래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개념이었다. 초6 또래관계에 대한 초5 자아개념, 부모관계 영향력은 각각 $\beta=.356$, $\beta=.026$ 이었다. 중1 또래관계에 대한 초6 자아개념, 부모관계 영향력도 각각 $\beta=.367$, $\beta=.027$ 이었다. 즉, 긍정적 또래관계 형성은 부모관계 보다는 자아개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느 한 시점의 자아개념(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는 2차시기, 초6)은 이전 시점의 부모관계($\beta=.083$) 보다 자아개념($\beta=.670$)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되었는데, 부모관계 외에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은 청소년기 또래관계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부모관계와 또래관계 간 인과관계는 부정적 인과관계로 나타났다. 이전 시점의 부모관계는 이후 시점 또래관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이전 시점의 또래관계는 이후 시점의 부모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횡단적 연구로서 부모관계와 교우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에 동시에 포함하여 분석한 김희영(2015) 연구에서는 부모관계와 교우관계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었다.

이 연구는 부모관계와 또래개념이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관계와 또래관계 간 관계에 대해 선행연구와는 차별된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는 초5, 초6, 중1, 3년 동안의 데이터를 참조한 것으로 청소년기 전체에 대한 결과로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연구에 따라 다양한 설문지를 통하여 자아개념, 부모관계, 또래관계를 측정함으로써 설문지 간 얼마나 동일한 구인을 측정하는가에 대한 고려도 결과해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에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검증하여, 청소년의 자아개념 형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비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문헌

- 권해진, 김경희, 염순교, 조주연, 함미영(2005). 남자 청소년이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 양상과 성역할 정체성 관계. **청소년학연구**, 12(4), 19-38.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대한민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희경(1990).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내 중학생들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희영, 양미경, 곽수란(2015).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자아개념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인과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11), 407-440.
- 도현심, 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3.
- 박응임, 김현숙(2000). MMTIC에 의한 성격유형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한국심리유형학회지**, 7(1), 83-96.
- 백승희, 전현정, 정혜원(201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종단연구: 휴대전화의존도,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5(4), 167-188.
- 송인섭(1998).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서울: 학지사.
- 윤경희, 김경희(2002). 중학생의 가정환경, 자아개념, 학업성적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12(3), 5-25.
- 이사라, 박혜원(2005). 부모, 또래, 교사가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개념발달에 미치는 영향: 중국 조선족과 한국 아동 및 청소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3(5), 163-181.
- 이사라, 오윤진(2008).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관계가 청소년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9), 113-123.
- 이윤주, 현정화(2003).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의 관계. **교육학논총**, 24(2), 29-43.
- 임진섭(2010).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검증-성별간 다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2(2), 161-185.
- 조윤하(1998). **학습부진아의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박민선, 김원정(2007). 인터넷 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이의 자기회귀교차지연효과 검증: 성별 간 다집단 분석. **교육심리연구**, 21(1), 129-143.
- 홍세희, 박언하, 홍혜영(2006).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 추정: 변화에 있어

- 서의 개인차에 대한 부모효과와 또래효과의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7(2), 241-263.
- Anderson, C. M. (1952). The self-image: a theory of dynamics of behavior. *Mental Hygiene, New York*, 36, 227-244.
- Hu, L. T., & Bentler, P.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McGuire, W. J. (1983). A contextualist theory of knowledge: Its implication for innovations and reform in psychological research. In I. Berkowitz (Ed.), *Advance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 (pp. 1-47). New York: Academic Press.
- Schumaker, R. E., & Lomax, R. G. (1996). *A beginner's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J: Lawrence Erlbaum.